

동대 일산병원 12월 개원, 재원확보 총력

개원준비위원장 영배 스님 “장비·비품 구입 등 300여 억원 필요”

영안실 추가·병원 자동화 등 부담 240억 늘어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개원을 위해 200~300억원의 자금이 총당되어야 한다는 현황파악 조사결과가 나왔다.

불교병원 개원준비위원회 위원장 영배스님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월 한 달 동안 병원 재정, 건설부분, 추진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추가 및 별도공사로 인해 지난해 12월 개원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는 병원건립시 시행자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추가공사가 통상 사업비의 10%내에 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병원은 31%나 된다는 것이다. 당초 불교병원 총사업비는 총 770억원이었다. 이

중 무균실, 중수도, 영안실 확장 등 추가공사 비용이 100억원 소요됐고, 병원자동화 시스템에 60억 등 총 240억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돼 총 사업비는 1,017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현재 동국학원이 총당할 수 있는 가용자금 총 270억원을 모두 사용해도 개원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IH설비(자동항온항습시스템), 비품구입 비용 200~3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병원개원준비위는 조사결과서에서 불교병원이 충분한 타당성 검토나 의견수렴을 통한 추진을 하지 않아 재원조달이 미흡했고, 건축이나 설비부분에 과잉투자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원의 경우 한정된 학교재정 운영원칙을 어겼

으며, 장비구입도 절차상 문제가 있고, 설비부분에도 경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의 무균실 장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일산 불교병원에만 집중된 결과 경주나 포항 등의 부속병원에 대한 시설투자가 미약해 경쟁력을 상실케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총체적 문제는 학교가 2002년말 병원개원의 어려움을 예상했음에도,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원준비위는 올해 12월 개원을 목표로 200~300억원에 이르는 개원소요자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추경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류된 대학의 병원 관련 예산편성에 나서고, 의료장비 리스 확대, 기금모금이나 후원조직 활성화, 종단 협조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MBC ‘10·27법난’ 진상규명 미흡

조계종 자료공개 거부 “과거 회상에 그쳤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10·27법난의 진실’이 16일 방영된 후 대부분의 국민들과 불자들은 진상규명이 미흡하고, 과거 회상에 그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45계획’으로 알려진 10·27법난은 1980년 10월 27일 ‘타락한 불교계를 정화한다’는 명분아래 전국 3천개 사찰에 군화발로 법당을 부수고 들어와 스님을 비롯 불자 1,700명을 연행한 전대미문의 종교탄압 사건이다.

불교계는 이번 방송을 앞두고 10·27법난의 실상과 책임자가 낱낱이 밝혀져 당시 상처와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10·27법난 동기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이미 대불련 등 불교청년들의 자체노력으로 규명된 법난의 성격을 반복하는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자료부실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MBC측은 10·27법난과 관련한 자료를 전두환 노태우씨 등 책임있는 당사자들과 공문서나 중회의 회의록을 갖고 있는 종단에 요청했지만 협조받지 못했다. 종단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불교계의 치욕적인 부분을 다 드러내놓고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자료협조 거부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피해당사자인 조계종이 쉬쉬하는 태도라면 10·27법난은 계속 불교계의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27법난을 다시 되돌아본 계기를 통해 불자들은 명백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평불협)는 북한 사찰 단청 지원과 관련 3월 중 안료 5톤(약 2천만원 상당)을 북송하고 평양 법운암의 단청과 개금, 사리원 성불사 개금불사를 올 부처님오신날 이후 바로 시작할 예정이다.

평불협은 17일 서울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2일 베이징 평양관에서 열린 조선불교도연맹과 회담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평불협은 이를 위해 김성룡 단청전문가와 김성호 불교미술전시관장 등 5~6명의 기술자와 방문단 10여명이 불사 시작 때 방북해 단청불사 입재법회를 조율하고 함께 봉행할 계획이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에 대해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1998년 합의를 했으나, 조계종이 현대와 사안에 대해

내달 단청안료 5톤 북한 지원

평불협, 법운암·성불사 봉축일 후 개금·단청

협의를 계속해온 점을 고려해 조계종에 양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강산 마하연 선방 복원은 조건이 구비되는 대로 시행한다. 또 올해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인천에서 평양순안공항 직항로로 방북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기자회견에서 법타스님은 “이번 단청지원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진행할 것이며, 향후 필요에 따라 민주본과 협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본 한 관계자는 “민주본으로의 창구단일화가 기본 입장이지만, 가능하면 평불협과 논의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통일부의 승인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두 단체 모두 아직 방북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며 “불교계 내부에서 서로 조정된 뒤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인터뷰 I

“전문인재 양성 종합대학 만들 터”

첫 신입생 뽑은 박봉식 금강대 총장

“금강대학교가 최고의 대학을 향한 출발선에 섰습니다. 정보활용 능력과 능란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은 종합대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첫 신입생을 모집해 17일부터 21일까지 논산 캠퍼스와 중국 북경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천대종립 금강대학교 박봉식 초대총장은 세계로 나아가는 인재와 원만한 성품을 갖춘 전문적 지도자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총장은 “초현대식 교육기

학교·기숙사 24시간 교육 프로그램 마련

자재를 최대한 활용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학교와 도서관, 기숙사 등지에서 24시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갖춰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교정신과 천대종의 중장이념을 살려 금강대를 한국불교학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한 중장



기적인 프로젝트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박 총장은 최상의 교육환경 속에서 최고의 전문인을 양성해 꿈을 현실로 바꾸는 금강대로 자리매김 한다는 목표 아래 불교문화학부, 동역학부, 사회과학부에서 능력있는 소수 정예학생을 선발해 전인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첫 신입생이 처음으로 배출되는 4년후에는 대학원을 설립하고, 부설 불교문화연구소·

통번역연구소 등을 설립해 학문연구에

도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의 실현이 학생들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강조한 박 총장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사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학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인터뷰 II

“첨단 생명과학대학 지향했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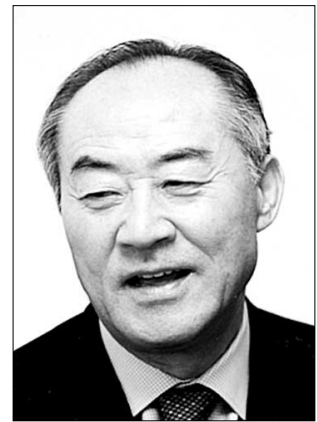
28일 퇴임하는 송석구 동국대 총장

“8년 동안 외형적 성장과 재정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1950년대까지 지켜졌던 한국 3대 사립대의 위상을 다시 확보했으면 합니다.”

50년 만에 모교출신 첫 총장으로 선출돼 8년을 재직하고, 28일 퇴임하는 동국대 송석구 총장은 “새 총장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일체단결해 이제는 내적인 발전을 이뤘으면 한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한국불교의 위대성에 비취볼 때 종립대 위상이 낮다”며 “동국대가 앞으로 BT(바이오)에 역점을 둔 첨단 생명과학대학으로 나아가면 한다”고 학교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송 총장은 선출된 후 ‘3대 사립대학 위상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1000억원대의 학교재정을 3000억원대로 늘렸으며, 제3캠퍼스 건립과 분당, 강남, 경주한방병원, 일산불교병원 건립, 경주병원 증축에



진력해왔다.

또 공부하는 대학, 연구하는 대학을 구현하기 위해 학부제를 시행하고 교수연구비를 늘리는 등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일산 제3캠퍼스는 지금 레이아웃까지 완성됐고, 개육개혁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새 총장이 조금만 손질하면 충분히 대학발전의 기틀이 된다”고 강조한 송 총장은 “모교총장으로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건립한 불교병원이 개원

하는 것을 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불교병원 개원 못한 채 떠나 아쉬움

“8년간 재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종단의 이 사스님들과 불자님들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이제 학자로 돌아가 불교사상을 연구하고, 전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송 총장은 평교수로 돌아가 후학양성과 연구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새롭고 정갈한 음식점

삼청동 고조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식 일품요리로 건강을 지킵시다

사전 전화예약 : 02)732-7355
삼청동 우리은행 뒤편(우리은행 주차장 이용)